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③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④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②

* 구석기 시대의 생활모습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나무 열매나 식물 뿌리를 채집하여 먹거나 주먹도끼나 찍개 등의 뗀석기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① 고려 시대에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③ 철기 시대 이후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며 명도전(연), 반량전(진), 오수전(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무덤으로 거대한 고인돌을 조성하였다.

⑤ 신석기 시대에 식량을 저장하는 토기가 처음 나타났고,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이다.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누선장군 양복이 병사 7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다. 이 나라의 우거왕이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성을 나와 공격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한편 좌장군 순체는 패수서군을 공격하였지만 이를 깨뜨리고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 무제는 두 장군이 이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에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엄을 갖추고 가서 우거왕을 회유하도록 하였다.

①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②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④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정답: ⑤

* 고조선에 대하여

위만 집권 이후 고조선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며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우거왕 때에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편,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8조법)가 있었으나 3개(살인, 상해, 절도) 조항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① 백제는 호암사(부여)의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재상 등을 뽑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② 고구려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③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삼한에서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신성 구역인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3.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 6년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국사(國史)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에 포폄(褒貶)*을 보여 주는 것이니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서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문사들을 모아서 [이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 -『삼국사기』-
>
> *포폄(褒貶): 칭찬과 비판을 하거나 또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②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③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이라 하였다.
⑤ 지방관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정답: ②

* 신라 진흥왕의 업적

신라는 진흥왕(540~576)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576),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545)를 편찬케 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① 신라는 성덕왕 때에 백성에게 정전(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조세.공납.역을 수취케 한 토지)을 지급하였다(722).

③ 신라는 신문왕(681~692) 때에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과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④ 신라는 내물왕(356~402)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계승권이 확립되었고,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⑤ 신라는 문무왕(661~676) 때부터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주(州)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673).

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습니다.
③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습니다.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⑤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습니다.

정답: ③

* 초기국가 부여

고조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던(길림, 농안)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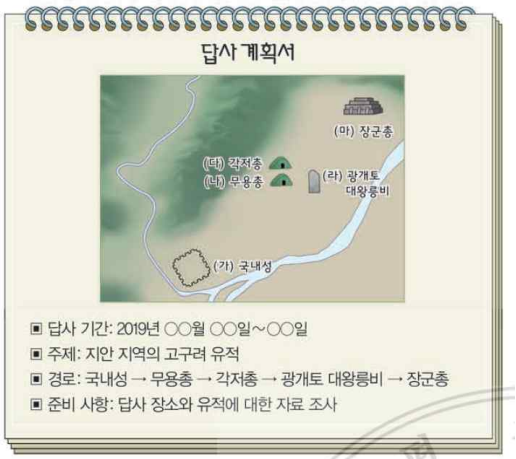
① 옥저에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② 변한과 이를 계승한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등에 수출까지 하였다.

④ 동예는 특산물로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⑤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5.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한 곳이다.
② (나) –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 있다.
③ (다) –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다양한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④ (라) –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에서 비의 설립 시기가 고증되었다.
⑤ (마) –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 준다.

정답: ②

* 길림 집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

(가) BC 37년에 오녀산성(졸본성, 현 요녕성 환인현)을 도읍으로 건국한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여, AD 3년 유리왕 때 국내성(길림성 집안)으로 천도하였다. 평성인 국내성(일명 통구성)은 산성인 환도산성과 함께 산성-평성 체제를 이룬다.

(나), (다) 고구려인들은 굴식 돌방무덤에 많은 고분 벽화를 남기었다. 중국 길림 집안(국내성) 지역의 고분 벽화에는 민중의 생활상의 벽화가 잘 나타나는데 무용총의 무용, 수렵도(고구려의 상무적 모습), 각저총의 접객도(귀족과 하인의 모습의 크기 차이), 씨름도(서역 인물의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라) 만주 길림 집안 소재한 광개토대왕릉비는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414년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고구려의 개국 설화 (주몽 설화 -> 천손 의식)
2부: 광개토 대왕의 군사적 공적 (영토의 확장과 특히 400년 신라를 침공한 왜군 격퇴 사실 기재)
3부: 능묘를 지키기 위한 연호(烟戶: 수묘인) 300호의 배치 상황 등

(마)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꾸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① 고구려 고국원왕(331~371)은 백제 근초고왕(346~375)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371).

③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묻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④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 진흥왕(540~576) 때 건립된 것으로 한강 하류까지 진출한 증거로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고증하였다.

⑤ 백제 무령왕릉은 웅진(공주) 시기의 고분으로 중국 남조(양)의 영향을 받아 벽돌식 무덤으로 조성되었다.

6. 밑줄 그은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아서, [그곳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원망스러워하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고 못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고 온달이 왕에게 아뢰었다. …… 마침내 온달이 출전하여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하였는데,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사망하였다.

①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②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③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④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정답: ②

* 온달의 전사(590) 이후의 역사적 사실

평강공주(평원왕의 딸)와의 결혼으로 유명한 고구려 온달 장군은 영양왕 1년 신라에 빼앗긴 한강 하류 지역의 아단성(아차산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590).

① 고구려 동천왕(227~248) 때인 244~245년, 2년에 걸친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해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어 옥저로까지 피신하기도 하였다.

②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킨(642) 후 정권을 독점하고, 대당 강경노선과 신라 압박을 추구하였다.

③ 고구려 미천왕(300~331)은 중국의 5호16국 혼란기를 틈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해 차지하였다(311).

④ 고구려 태조왕(53~146)은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옥저(56)를 복속하였다.

⑤ 고구려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천도하고(427)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펼쳤다.

7.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소정방이 당의 내주에서 출발하니, 많은 배가 천 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 …… 무열왕이 태자 법민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①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②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③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④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⑤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하였다.

정답: ②

* 의자왕(641~660) 재위 시기의 역사적 사실

의자왕(641~660)은 무왕(600~641)의 아들로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초기에는 어진 군주였으나(해동증자), 즉위 초부터 선덕여왕(632~647)의 신라를 자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642).

특히 윤충을 시키어 함락시키어 죽인 대야성의 성주 부인은 김춘추의 딸이었기에, 분노한 김춘추는 복수를 위해 고구려와 동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죽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는 연개소문에 의해 감금당하였고 간신히 탈출한 뒤 나당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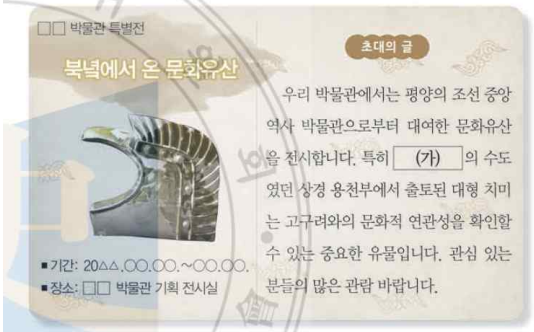
격국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 정치 질서의 문란과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나당연합군이 쳐들어 왔어도 모을 수 있는 군대가 계백의 5천 결사대 뿐이었고, 이들의 결사항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① 백제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③ 고구려 미천왕(300~331)은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축출하며 이 땅에 한의 군현을 모두 몰아내었다.

④, ⑤ 나당전쟁에서 신라 문무왕(661~681)은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왕족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임명하고(670),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고(674), 문훈이 이끄는 신라군은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치쳐 군마 3만필을 포획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다(676).

8.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② 백강 전투에 참전하는 왜의 수군
③ 청해진에서 교역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④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매하는 상인
⑤ 지방에 설치된 22담로에 파견되는 왕족

정답: ④

* 발해의 경제 모습

- 상경 용천부는 발해의 주된 수도이고, 이곳에서 출토된 치미(용마루 끝의 장식 기와)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 발해는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고(솔빈부의 말이 유명),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①, ③ 신라는 신문왕(681~692) 대에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으며, 흥덕왕(826~836) 대에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828).

② 백제 멸망(660) 이후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1천 척 중 400여 척이 불태워지는 큰 패배를 당하여 쫓겨갔다(663).

⑤ 웅진 시대의 백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9.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김구해가 아내와 세 아들, 즉 큰 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법흥]왕이 예로써 그들을 우대하여 높은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도록 하였다.
>
> -『삼국사기』-

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②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③ 박, 석, 김의 3성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하였다.
④ 시조 김수로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⑤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정답: ④

* 금관 가야에 대하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 건국 설화에 따르면 신라 때인 42년(유리왕 19) 구지봉(龜旨峰)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수로왕 등 6명의 가야국 시조가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 국가 조직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에 가야는 연맹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가야는 전신인 변한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붕괴되었다.

이후 가야 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

신라 법흥왕 때에 금관가야의 구해왕이 투항하였고(532), 진흥왕 때에는 이사부와 사다함을 시키어 도솔지왕의 대가야를 복속시키었다(562).

①, ③ 신라는 귀족 대표들이 모인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초기 이사금 시대에는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② 고구려는 고국천왕(179~197) 때에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춘대추납)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194).

⑤ 백제는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을 왜에 파견하여 삼국 중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0.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혜공왕 말년에 반신(叛臣)들이 제멋대로 날뛰자 선덕[김양상]이 상대등으로 있으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자고 부르짖었다. 김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난을 평정한 공이 있었으므로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김경신은 곧 상대등이 되었다. …… 이후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여 김경신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국인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① 진골 귀족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②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③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④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⑤ 최치원이 국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정답: ⑤

* 신라 원성왕 즉위(785) 이후의 역사적 사실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대공의 난(768)을 시작으로 96각간의 난이 일어나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혜공왕이 살해를 당하고 내물왕계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며 하대가 시작되었다(780).

그러나 선덕왕이 죽자 내물왕계인 김경신과 무열왕계인 김주원이 서로 왕위를 다투었는데, 이 때 승리한 김경신이 왕위에 올라 원성왕이 된 반면(785), 김주원은 중앙에 있지 못하고 지방의 연고지인 강릉으로 퇴거하여 지방 호족이 되었다. 그의 아들인 웅천주 도독 김헌창은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헌덕왕 14년(822)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의 손자인 범문도 난을 일으키다가 제거되었다(825). 이후에도 지방 반란이 잇따라 일어나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크게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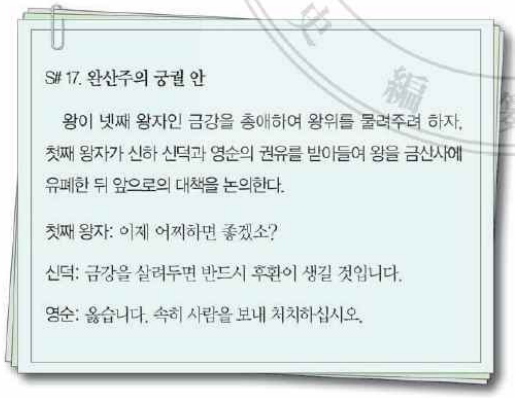
①, ② 신라 중대(654~780)는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르며 시작되었고(654), 신문왕 때에는 왕의 장인인 김흠돌의 반란(681)을 진압하며 귀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전제화시켰다.

③ 신라는 법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를 공인하였다(527).

④ 신라 선덕여왕 때에 대국통이었던 자장(590~658)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3).

⑤ 신라 말 진성 여왕 때(887~897)에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이 증폭되어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대 당에서 귀국한 6두품 출신 최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왕에게 개혁안(시무 10조, 894)을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11.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신숭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②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었다.
③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④ 신검이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에 패배하였다.
⑤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정답: ④

* 후백제와 고려의 항쟁

상주 출신의의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신라 왕족의 후예인 궁예는 처음에는 북원(원주) 지방의 양길 휘하의 도적 집단에서 성장하여 세력이 커지자 독립하여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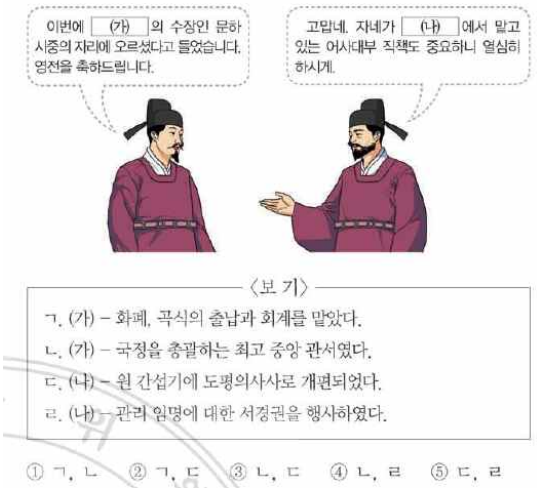
궁예를 몰아 낸 뒤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918),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태조는 궁예와 달리 신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내세웠다.

927년 후백제가 신라 경주를 급습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자 직접 신라를 돕기 위해 출전하던 중 공산(대구)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였으나(신숭겸 김락 등 전사), 이들을 막아냄으로써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930년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여 승기를 잡고, 후백제에 내분(견훤의 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이 일어나 탈출한 견훤이 귀순하자, 후백제를 정벌(일리천 전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12. (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가) –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ㄴ. (가)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였다.
ㄷ. (나) –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ㄹ. (나) –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의 중앙 관제(중서문하성과 어사대)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문종 때에 완성: 1076).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최고 정무기관으로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고 국정을 심의·결정)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종1품)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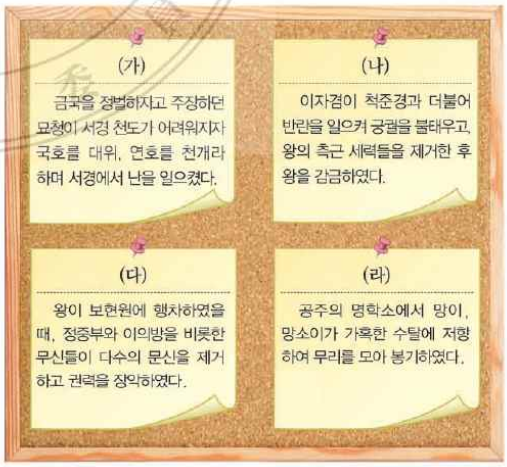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장관인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정2품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 또는 한직으로 많이 이용되어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국방·군사 등의 군무의 중요한 일을 결정)와 식목도감(법제·격식 제정)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기구이다. 특히 도병마사는 원 간섭기 이후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며 일반 국정까지 논하여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 군림하며 귀족 연합정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13.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가) – (나) – (라)

정답: ③

* 고려 중기 역사적 사실들의 연대기

(나) **이자겸의 난(1126)**: 고려 전기 최대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1105~1122)과 인종(1122~1146)의 왕비로 두어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하다 국왕의 자리까지 넘보기에, 왕위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이자겸의 반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 한다(1126). 그러나 얼마 후 인종은 이자겸의 부하인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하였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가) **묘청의 난(1135)**: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다) **무신정변(1170)**: 문신들에게 모욕적 차별을 받던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 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이후 무신들의 수탈에 신음하던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전국에서 만연하였다.

(라) **공주 명학소의 난(1176)**: 정중부 집권시기에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며 회유했으나, 난민들을 응하지 않고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결국 1년 반 만에 진압되었다,

14.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②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④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⑤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성종의 업적

조선 성종은 건국 이후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1484)하여 반포함(1485)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는 호학 군주로 예문관에서 집현전 후신으로서의 홍문관(1478)을 분립시켜 경연을 전담하게 하였다. 여기에 김종직 등의 사림 인물들을 대간으로 임명하여 총애하는 등 홍문관을 학문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였다. 그 외에 독서당제(1471)를 운영하여 젊은 문신들의 학문연구를 고취하고,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경적을 소장시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과전법~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양반 관료가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1470).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 국가적 차원의 편찬 작업이 완성되는데, 서거정 등이 삼국이래로의 시문선집 동문선(1478)과 역사서로 동국통감(1485)을, 노사신 등이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 성현 등이 음악서인 악학궤범(1493), 신숙주 등은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1474)를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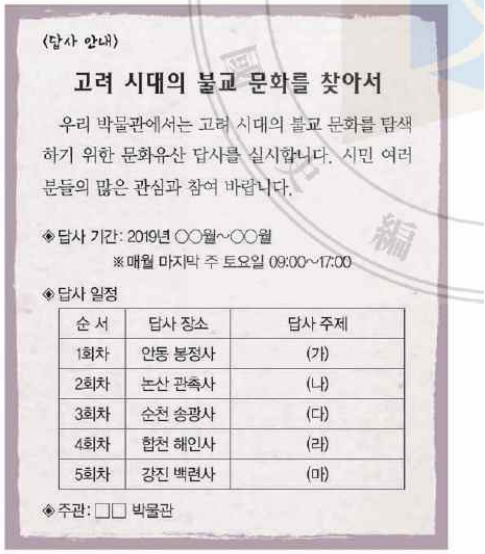
① 태종(1400~1418)은 최고 정무기관인 문하부를 혁파할 때 산하의 하급 관료인 낭사는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자유롭게 비판하게 하였다(1400).

② 1392년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1393), 하륜·정도전 등의 건의에 따라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다(1394).

③ 세종(1418~1450) 때에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외편이 만들어졌다. 특히 칠정산 내편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⑤ 세조 때에 직전법(1466)을 제정하여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고 토지 지급액을 감소시켰으며, 세습 가능한 수신전·휼양전 등을 폐지하였다

15.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사 안내〉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를 찾아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답사 기간: 2019년 ○○월~○○월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7:00

◈ 답사 일정

순 서	답사 장소	답사 주제
1회차	안동 봉정사	(가)
2회차	논산 관촉사	(나)
3회차	순천 송광사	(다)
4회차	합천 해인사	(라)
5회차	강진 백련사	(마)

◈ 주관: □□ 박물관

① (가) – 팔상전을 통해 본 오층 목탑의 구조
② (나) – 석조 미륵보살 입상의 조형적 특징
③ (다) –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와 주요 활동
④ (라) – 팔만대장경의 운반 과정과 보관 경위
⑤ (마) –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요세의 신앙 결사 운동

정답: ①

* 고려 시대의 불교문화(사찰 중심)

(가) 안동 봉정사: 고려 시대에 주심포 양식(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음)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 중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국보 15호)은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이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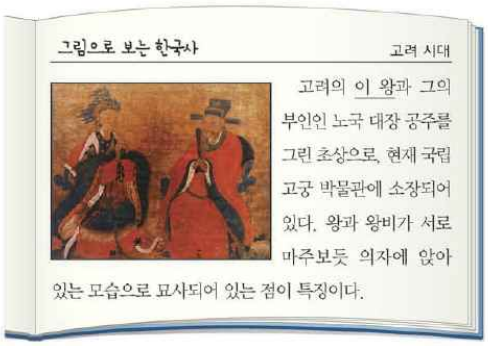
(나) 논산 관촉사: 충남 논산 은진면에 소재한 이 사찰은 석조 미륵보살 입상(국보 323호, 일명 은진 미륵)로 유명하다.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고려 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 유난히 머리가 커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다) 순천 송광사: 신라 말 혜린이 송광산 아래에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고려 후기 지눌이 정혜(결)사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수선(결)사라 칭하였고 절은 송광사로 불리웠다. 현재는 송광산이 조계산으로 개칭되었고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 본산이 되었다. 많은 승려들이 이곳에서 득도수양하며 16명의 국사를 배출해내어 승보(僧寶) 사찰의 지위를 얻었다. 바로 이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 국사전이고, 국보 56호로 지정되었다.

(라) 합천 해인사: 신라 말 애장왕 때에 순응과 이정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고려 창건 당시에 주지인 희랑이 도움이 커 보답으로 고려의 국찰이 되었다. 항몽 과정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강화도 선원사의 장경판(국보 32호)이 조선 태조에 의해 1398년 이곳 장경판전(국보 52호)으로 이전 보관되어 호국신앙의 요람이 되었고 법보(法寶) 사찰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①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조선 후기에 지어진(1605)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소재한 곳이다. 금산사 미륵전(1635), 화엄사 각황전(1702) 등과 공통적으로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6.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②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③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삼별초가 조직되었다.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⑤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정답: ①

* 공민왕 대의 반원자주 정책

공민왕(1351~1374)은 충숙왕의 둘째 아들로서 원나라 노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원에서 살다가 원의 후원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고려인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반원자주 정책을 도모하였다.

그의 반원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유인우와 이자춘·이성계 부자를 시키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으로 이전한 동녕부를 공략하였다(1370).

②, ⑤ 우왕(1374~1388) 때에 나세, 심덕부 등은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고(1380), 명이 철령위를 설치하며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1388).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③ 고려 고종(1213~1259) 대에 집권자 최우는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포로에서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합하여 삼별초 조직을 만들었다(1219).

④ 고려 성종(981~997) 대에 거란의 1차 침입(993) 당시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강변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994).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했어요.
ㄴ.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어요.
ㄷ.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구급방을 편찬했어요.
ㄹ. 농업 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가 저술됐어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고려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

- 고려 시대에는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리라고 추측되고, 우왕 대에는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게송(偈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은 '직지심체요절'을 그의 사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하였다(1377).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 고려의 천문학은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천대(서운관)가 설치되었고, 이곳의 관리는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려 말에 최무선은 끈질긴 노력 끝에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고 이에, 고려 조정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중심으로 여러 종의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으로 발달함으로써 향약방이라는 고려의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3세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1236)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 조선 후기에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 조선 후기에 서유구는 임원경제지(1824)를 저술하였다. 이는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로서, 전국 주요 도시에 국가 시범농장인 둔전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18. (가)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내상과 만상이 국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②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활발하게 재배되었다.
③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④ 건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 화폐의 통용이 추진되었다.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정답: ④

* 고려 시대의 경제상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최초의 화폐인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 때에는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1101)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입구가 넓다하여 이를 활구(闊口)라 불렀다.

고려 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해져 대청무역은 의주상인(만상)이 대일무역은 부산 동래상인(내상)이 주도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시장에 팔기 위한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며 농민들은 쌀, 목화,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③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이 확산되며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⑤ 조선 사대에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으나 몰래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하자, 17세기에 이르러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게 정부의 감독 아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1651, 설점수세제).

19.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②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③ 동호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⑤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정답: ⑤

* 예학을 확립한 김장생에 대하여

성리학자인 김장생(1548~1631)은 예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학자들의 예설에 주석을 붙인 '가례집람'을 저술하였다.

이후 그의 학통은 아들 김집과 제자인 송시열, 송준길 등 기호 서인에게 이어지고 현종 때에 남인들과 치열한 예송논쟁을 벌였다.

①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박세채, 윤증 등의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학파).

② 성종 대 영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1431~1492)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은, 연산군 대에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로 실록에 등재하여 무오사화(1498)의 원인이 되었다..

③ 이이(1536~1684)는 당시 시대를 왕조의 쇠퇴기로 판단하고 <동호문답>에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수미법 주장)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경장론).

④ 이황(1501~1570)은 성학십도(10개의 도표와 해설로 구성)에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20.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 세조 때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1467)은 조선 전기 석탑의 대표작이다.

고려 시대 경천사 10층 석탑(국보 86)을 모방하여 만든 대리석 탑으로, '아(亞)' 자형의 3층 기단, 이와 같은 평면의 3층 탑신, 네모꼴로 된 4층 이상의 탑신이 경천사 10층 석탑과 기본적으로 같다.

각 층 옆면에는 용·사자, 모란·연화문, 인물·조수(鳥獸), 초목, 궁전, 나한,선인 등 여러 가지 장식이 화사하게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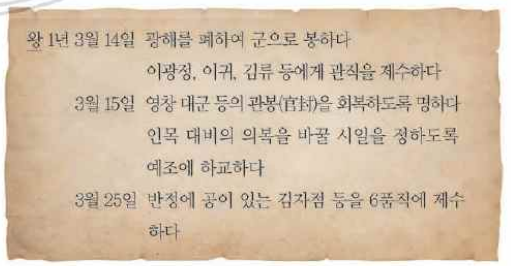
②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익산에 소재한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 석탑(부여 소재).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③ 다보탑(국보 20호):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④ 진전사지 3층 석탑(국보 122호): 전형적인 통일신라기의 3층 석탑이나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진전사는 선종을 도입한(821) 도의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 9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정림사지 5층 석탑과 함께 7세기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무왕 때(639년)에 만들어진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이다.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어,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21.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왕 1년 3월 14일 광해를 폐하여 군으로 봉하다
아광정, 이귀, 김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3월 15일 영창 대군 등의 관봉(官封)을 회복하도록 명하다
인목 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일을 정하도록 예조에 하교하다
3월 25일 반정에 공이 있는 김자점 등을 6품직에 제수하다

①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②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③ 총융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다.
④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 6등법을 제정하였다.
⑤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

정답: ③

* 인조에 대하여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은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그러나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폐모살제)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이귀, 김류 등의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623).

그러나 인조와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이괄의 난(1624)과 후금과의 항쟁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융청(1624, 북한산성과 경기지역 방비), 수어청(1626, 광주 남한산성 방비) 등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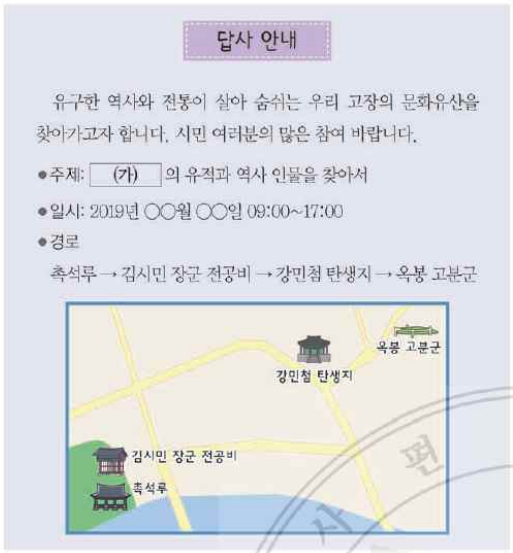
① 세조(1455~1468) 때에 함경도의 토호 이시애의 난(1467)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② 정조(1776~1800)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④ 세종(1418~1450)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공법(1444)을 마련하여 전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각각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⑤ 효종(1649~1659) 때에 러시아가 흑룡강 쪽으로 청을 침공해 오자,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변급, 1658-신류)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나선정벌).

22.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② 정묘호란에서 정봉수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③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검색한다.
④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를 찾아본다.
⑤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조사한다.

정답: ⑤

* 진주의 역사

- 임진왜란 때 진주 목사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 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장렬히 전사하였다(진주대첩, 1592.10).

- 세도정치기(1800~1863) 최대 농민봉기인 임술농민봉기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진주에서의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정조 때의 제주 관기 출신의 여류 거상(巨商) 김만덕(1739~1812)은 제주도의 1795년 폭풍과 폭우로 인한 대기근 때에 자신을 재산을 아낌없이 구휼미로 내놓는 등 빈민구제에 힘을 쓴 의로운 여인이었다.

② 정묘호란(1627) 때에 후금군을 맞아 정봉수는 의병을 이끌고 평북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③ 신유사옥(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④ 임진왜란(1592) 때에 신립은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강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23. 밑줄 그은 '주상'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신유박해로 다수의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②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③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④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⑤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정답: ①

* 순조 때의 역사적 사실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자 12살의 어린 나이로 순조(1800~1834)가 즉위하자 노론 벽파 성향의 정순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공노비 중 중앙 각사나 내수사에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고 있던 내시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1801), 신유 천주교 박해(1801)를 일으켜 정약용 등 시파 남인들을 축출하고,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혁파하는 등 정조가 수립한 정치질서를 부정하였다.

정순왕후가 수렴첨정을 거두고 죽으며(1805)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순조의 장인 노론 시파 계열의 안동 김씨 김조순이 정치를 주도하며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외척을 견제할 붕당이 없는 상황에서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기강 문란해지며 민생은 파탄났다. 그리하여 홍경래의 난(1811) 등의 농민봉기가 발발하는 혼돈의 시대가 순조 대에 비롯되었다.

② 철종(1849~1863) 때에 농민봉기는 1862년 임술년에 극에 달하였다. 이 때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③ 광해군(1608~1623) 때에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④ 영조(1724~1776)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붕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⑤ 조선 고종(1863~1907) 대 흥선 대원군의 통치기(1863~1873) 때에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1785) 이후의 법령을 추가하여 조선 왕조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1865)을 편찬하였다.

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가) – 혜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② (가) –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③ (나) –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④ (나) – 금난전권을 행사해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⑤ (가), (나) –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 상회를 설립하였다.

정답: ②

* 송상과 경강상인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송상), 평양(유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사개치부법'이라는 일종의 복식부기를 사용하였고, 전국에 지점(송방)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세곡 운송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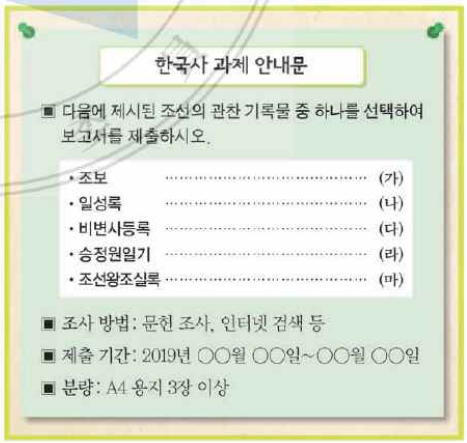
① 개항 이후 외국상인들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은 보부상들을 위해 민씨 정권은 보부양단을 통합하여 혜상공국(1883)을 설치하여 비호하였으나 자유상업에 걸림돌이 되었다.

③ 조서 후기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특히 일종의 사무역인 책문 후시를 통해서 중국 요동 상인과 거래하였다,

④ 도성의 관허 상인인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사상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며(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⑤ 개항 이후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개항장의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동업자를 모아 1883년부터 대동상회 등의 상회사를 세우기 시작했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② (나) –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③ (다) –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④ (라) –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⑤ (마) –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관찬 기록물

조선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인 실록을 대대적으로 편찬하였다.

실록 편찬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담당하였다.

춘추관이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인 등록을 종합·정리하여 매달 1책 또는 그 이상으로 묶어 보관하는 시정기와 사관이 작성한 국왕의 언동, 신하와의 정치논의 등을 기술한 자료인 사초, 각사 등록, 조선시대에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인 승정원일기, 조보(朝報: 관청 소식지)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고, 문집·일기·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국왕의 일기로 1760년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기록한 것이 효시)도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역사 기록의 띄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과 2001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② (나) – 촉의 장수인 관우를 제사지내는 사당이다.
③ (다) –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④ (라) –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마) –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정답: ⑤

* 서울 도성의 문화유산

(가) 사직단: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국토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위한 제단.

(나) 종묘: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를 모셔 제사를 드리는 곳.

(다) 문묘: 성균관이나 사학·향교 등의 관학 기관은 문묘(공자를 모시는 곳)와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소재한 대성전(大成殿) 영역과 명륜당(강당) 및 학생들이 기숙하는 동재(東齋:양반)·서재(西齋:평민)가 있는 명륜당(明倫堂)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라) 동관왕묘: 중국의 촉의 장수인 관우를 신앙하기 위하여 건립된 묘당. 줄여서 동묘라고 부른다. 관왕묘는 임진왜란 때인 1598년 명의 원군 장수 진인이 서울 남대문 밖에 처음으로 건립하였는데 남쪽에 있다 하여 남관왕묘라고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임진•정유왜란 때 관우의 혼이 나타나 때때로 명나라 군사를 도왔다 하므로,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관왕묘를 건립한 것으로 보이고, 동관왕묘는 선조 33년(1600)에 명나라의 칙령으로 건립하여, 선조 35년(1602)에 준공하였다.

(마) 선농단: 임금이 농사와 인연이 깊은 신농씨와 후직씨를 주신으로 모시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던 제단(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이곳에서 친경(親耕)을 한 후 소를 잡아 선농탕(->설렁탕)을 끓여 백성들과 나누었다 한다.

③ 만동묘: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제자인 권상하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지내기 위해 1704년(숙종 30) 충북 괴산 화양에 세운 묘. 흥선 대원군의 개혁에 의하여 혁파되었다

27.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화이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았다. 주로 부산의 초량 왜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역을 통해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조선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 등을 사들였다.

①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② 학문 교류를 위해 만권당을 설립하였다.
③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하였다.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⑤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대일 정책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1609년 두무포->1678년 초량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① 고려 정종(945~949) 대에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광군 30만이 조직되었다(947).

② 고려 말 충선왕은 원의 연경에 만권당(1314)을 세우고 이제현 등의 성리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③ 조선은 명에 대해 사대 정책(조공,책봉 관계)을 펼쳐 매년 정기적(하정사·성절사·천추사·동지사), 부정기적(사은사·주청사·진하사·진주사 등)으로 사절을 보내었다.

⑤ 조선 초기 세종 대에 여진 사절단을 대접하는 곳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에 북평관(야인관)을 설치하여 조공 무역을 허락하였다(1438).

28. (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윤국형은 우성전과 유성룡의 심복이며 또한 이성중과 한 집안 사람입니다. 당초 신묘 연간에 양사에서 정철을 탄핵할 때에 옥당은 여러 날 동안이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가)](이)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하여 결국 당쟁의 실마리를 크게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유성룡이 사당(私黨)을 키우고 사류(士類)를 배척하는 데에 모두 윤국형 등이 도왔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①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끌었다.
②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③ 이언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④ 기해 예송에서 자의 대비의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정답: ③

* 남인에 대하여

1567년 선조가 즉위 후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되었다(1575).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1589) 등을 계기로 서인 정철이 주도한 기축옥사에서 크게 탄압받았으나, 곧 세자건저 문제로 서인이 몰락하자(1591) 이 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남인에는 이언적과 이황의 제자인 유성룡, 김성일 등이, 북인에는 서경덕과 조식의 학통을 이은 이산해, 정인홍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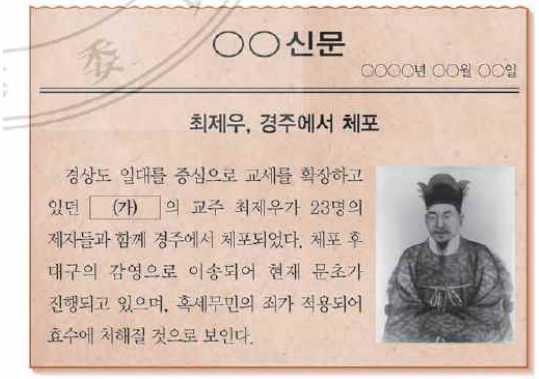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을 놓고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과 남인 간에 예송이 발생하였다. 두 차례의 예송(기해-1659, 갑인-1674)이 발생하면서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과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어 각각 승리하였다.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기년복(1년), 남인은 삼년복을 주장하였고, 갑인예송에서는 서인이 대공복(9개월), 남인이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 국왕이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3차례의 큰 환국(경신-1680, 기사-1689, 갑술-1694)이 나타나,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서인 또한 남인을 역모로 몰아 정권을 독점한 경신환국(1680) 후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강경론인 노론과 온건론인 소론으로 분화되어 대립하였다.

29.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②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③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다.
④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정답: ②

* 동학에 대하여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인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도교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동학은 서학, 즉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등 반외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동학이라는 이름도 서학인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후천개벽(현세의 부귀와 빈천이 바뀐다)을 부르짖어 조선 왕조의 운세가 다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하게 생각하여 금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1864).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교리책인 동경대전과 포교 가사책인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후일 동학농민운동(1894)이 일어나게 되었다.

① 개항 후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근대식 학교로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힘썼다.

③ 불교계의 한용운(1879~1944)은 일제의 사찰령(1911)에 맞서 조선불교유신회 설립을 주도하고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1916)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⑤ 천주교는 정조 때 모친상을 당한 윤지충의 신주 소각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신해박해(1791)의 예에서도 보듯이, 제례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3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②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삼한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③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④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⑤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정답: ⑤

*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1622~1673)은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는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 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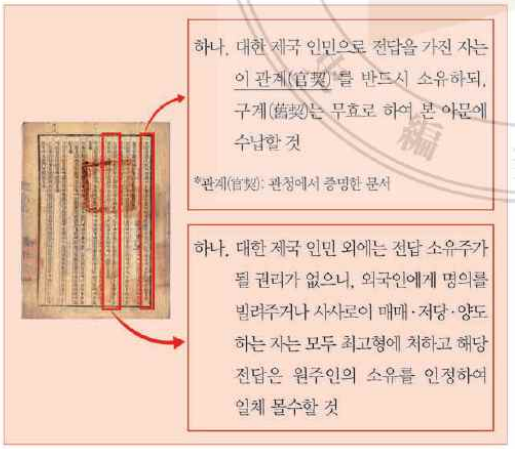
① 정조 때에 규장각을 설치하고(1776)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의 유득공, 이덕무, 박제거, 서이수 등을 등용하였다.

② 한백겸(1552~1615)은 동국지리지(1615)에서 문헌고증과 답사의 방법으로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증하여, 고구려의 발상지가 평안도 성천이라는 통설을 뒤집고 만주 지방이라는 것을 처음 고증하였고, 삼한의 위치도 고증하여 객관적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③ 북학파 실학자인 홍대용(1731~1783)은 김석문에 이어 지구 자전설(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④ 박지원(1737~1805)은 연행사로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31. 밑줄 그은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②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③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④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⑤ 제너럴 서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정답: ④

* 지계가 발급되던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사실(1901~1904)

대한제국은 전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계(소유증서)제도를 채택하여 지계아문(1901 설치)에서 토지문권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측량(미국인 기사 고용)과 소유증서(지계)의 발급을 병행하였기에 1902년 양지아문을 지계아문에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904년 1월 고종은 이제 각 지방에서 막 시행하려던 관계 발급 사업을 갑자기 정지시켰다. 그리고 지계아문을 축소하여 탁지부 양지국에 소속시켰다. 그해 4월에는 급기야 관계 발급 사업을 폐지하고 말았다. 이는 러일 전쟁의 발발(1904.2)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하여 광무연간 양전이 시행된 곳은 전 국토의 2/3인 218군이었다.

지계의 발급대상은 농지에 국한되지 않고 산림, 토지, 전답, 가사(家舍)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 지계의 발행 범위도 개항장 이외에는 대한제국의 국민에게만 지계 발급을 명문화함으로써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정식으로 금지한다는 규제조항을 실시하였다.

① 2차 수신사(1880)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국내에 소개한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만인소를 올렸다(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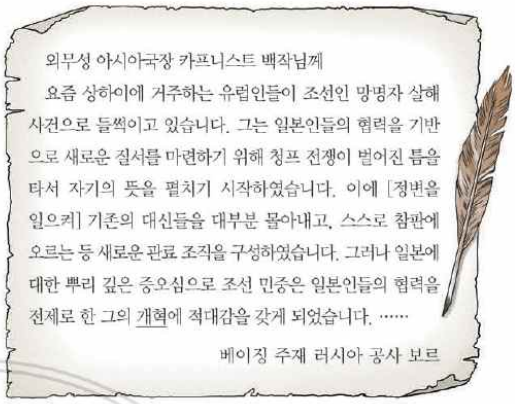
② 개항(1876) 이후 개화정책에 따라 박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③ 백정들은 3·1 운동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1900년 만주로 출병한 러시아는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1903년 삼림회사 보호라는 구실 아래 군대를 파견하여 무단으로 용암포를 점령하여 러일전쟁의 단서가 되었다.

⑤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1871년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

32. 밑줄 그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백작님께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청프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참판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보르

〈보 기〉

ㄱ. 집강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ㄴ.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였다.
ㄷ.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ㄹ. 국가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갑신정변에 대하여

- 상하이에서 살해된 이는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1851~1894)이다.

임오군란(1882.6)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12).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2월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개혁정강 14조에서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조공)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며, 혜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 동학농민운동(1894)은 전주화약에서 무명의 잡세 폐지와 토지의 균등분배 등의 경제적 요구 등을 담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며 집강소를 중심으로 이를 시행해 나갔다.

3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고, 우의가 돈독하여 사절이 왕래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짐이 믿고 아끼는 종2품 협판 내무부사 (가) 을/를 초대 주미 공사에 임명하여, 귀국으로 가서 수도에 머물며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 대신은 충성스럽고 근실하며 매사에 꼼꼼하고 자세하므로 그 직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대통령께서도 성실하게 서로 믿고 우대하는 예에 따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②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하였다.
③ 영국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④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⑤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 개화파 관료 박정양에 대하여

박정양(1841~1904)은 개화기의 대신으로 일찌기 조사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였다(1881).

초대 주미공사로 일하였고(1887), 1차 갑오개혁 때에 군국기무처의 회의원으로, 2차 갑오개혁에서는 학부대신으로 을미개혁에서는 총리대신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는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모임에 나가 관민공동회를 이루었고, 헌의 6조를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수구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1898)

그는 온건·중립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개화사상을 가져 이상재, 윤치호 등의 개화파 인사들을 지원하였다.

① 신민회 결성을 주도한 안창호(1878~1938)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1908).

② 개화파 유학생 유길준(1856~1914)은 서양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듣고 본 역사, 지리, 산업, 정치, 풍속 등을 기록한 기행문으로 서유견문(1895)을 저술하였다.

③ 양기탁(1871~1938)은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과 함께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④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자 특사로 이준(1859~1907), 이상설(1870~1917), 이위종(1887~?)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34.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제1조 중국 상무위원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북양 대신에게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하게 한다.
>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도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한다.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②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③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④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하였다.
⑤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정답: ③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현저히 차별닥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였다.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북양대신이 조선국왕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중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인근 한강인 양화진(楊花津)과 한성(서울)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성의 시전상인과 개항장의 객주 및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① 갑신정변 후 영국은 조러밀약설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 하였다(1885~1887).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9)으로 청상인들이 도성에 진출하고,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일본과 서구 열강의 상인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자, 시전상인들은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중앙총상회(1898) 등을 조직하여 상권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⑤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포함외교인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고(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3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①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곳입니다.
②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③ 일제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입니다.
④ 명성 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입니다.
⑤ 궁궐 안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습니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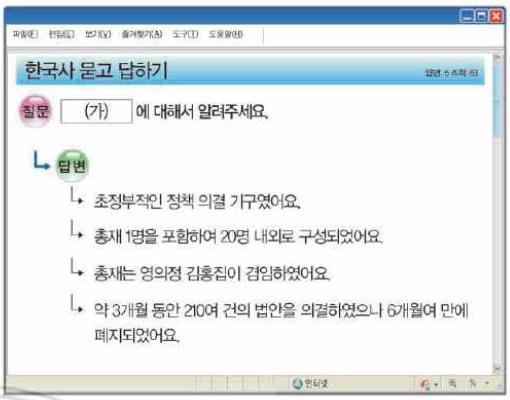
* 덕수궁에 대하여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고,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의 사저가 있던 곳이다. 임진왜란 이듬해(1593)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 후 이 사저를 행궁 삼아 거소하였고 창덕궁으로 환어하지 못하고 이 곳에서 승하였다. 광해군이 이 곳에서 즉위했으며, 무엇보다도 고종이 아관파천 후 이곳으로 환궁하여 이후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하였다.

정문은 대한문이고 탑골공원과 함께 이곳에서 3.1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정전은 중화전이고, 별채이자 편전인 중명전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석조전은 최초의 서양식(고딕) 건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경복궁의 후원인 옥호루에서 민비(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을미사변(1895.10)의 비극이 발발하였다.

36.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공사 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②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③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 잡았다.
⑤ 소속 부서로 교련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었다.

정답: ①

* 군국기무처와 1차 갑오개혁(1894. 7~12)

동학 농민 운동(1894)은 그 동안 쌓인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였다.

이 때,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 낸 후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였다(1894.7.23). 이에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었다(7.27). 군국기무처는 김홍집(총재), 박정양(부총재), 김윤식, 김가진 등의 반청, 반민씨 척족 성향의 온건개화파로 구성된 주요 임시 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심의하였다(1차 갑오개혁: 1894. 7~12).

당시 일본은 청과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은 비교적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일본은 흥선 대원군을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1894. 12~1895.7).

<1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치: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하여 국정은 의정부, 왕실 사무는 궁내부가 담당하게 하였고, 의정부 산하의 6조는 8아문으로 개편되었다.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제: 탁지아문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은본위 화폐 제도와 조세 금납제를 시행하였다.
사회: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공.사 노비 혁파) 조혼을 금지하였으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좌제 등 봉건적인 악습을 혁파하였다.

⑤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고종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군국기무와 대외교섭)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그 아래에 사대·교린·군무·변정·통상 등의 12사를 두어 외교.통상.재정.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37.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참정 김규홍이 아뢰기를, "(가) 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들의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의 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정의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① 숭무 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②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③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 상황을 살펴본다.
④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
⑤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를 확인한다.

정답: ④

*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19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만주(간도)였고,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 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북변(간)도관리(北邊島管理)를 설치하고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1902). 이범윤은 청과는 독립적으로 도민들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병영을 설치하고 포병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통감부는 교민의 통제를 위해 1907년 간도파출소를 설치했으나 1909년 청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는 대가로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는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간도에는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단체와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졌다. 특히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① 하와이 이민 중 일부는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해 갔다. 1905년 용설란(애니깽) 작업 이민로 시작된 멕시코 한인 교포를 이끌던 이근영은 메리다 지방에 숭무 학교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1910).

②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③ 신규식과 박은식은 상해에서 1912년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였다.

⑤ 일본은 유학, 취업 등 목적으로 많이 이주하였으며,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어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8.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개별적인 의거 활동에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황푸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일적 총지휘 기관의 확립'을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는 등 민족 혁명 전선의 제창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먼저 정기 대표 회의에서 한중 합작으로 군관 학교를 설립하여 '통일적 총지휘 기관'의 전위 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①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② 조선 혁명 선언이 작성되었다.
③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⑤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 정부가 통합되었다.

정답: ①

* 의열단의 방향 전환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 등을 처단하고,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지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왕궁(1924, 김지섭),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강령과 개인 폭력투쟁을 통해 민중의 직접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혁명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더 나아가 1935년에는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고,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10).

③ 국민대표회의(1923) 이후 독립운동의 분열이 심해지자 안창호 등의 호소로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위하여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1926).

④ 1912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국내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의병을 모아 일제를 몰아내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복벽주의).

⑤ 3.1운동으로 국내외에 많은 임시정부가 출현하였다. 연해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1919년 3월에 대한 국민의회가 조직되었고, 4월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같은 달 국내에서는 13도 국민대표 명의로 한성정부가 조직되었다.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서 구성되자 단일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국민의회는 통합된 임시 정부를 한인이 많이 살고 독립 전쟁에 유리한 간도나 연해주에 두자고 주장한 반면 상하이의 임시 정부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진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이에 두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하여 새 의정원을 구성하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상하이에 통합 임시정부를 결성하였다(1919.9).

39. (가), (나) 격문이 작성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이 53세의 나이로 지난 4월 25일에 서거하였다. …… 지금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은 군주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경술년 8월 29일 이래 자무친 슬픔 때문이다. …… 슬퍼하는 민중들이여! 하나가 되어 혁명 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자! 금일의 통곡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모아 우리들의 혈방 투쟁에 바치자!

(나) 조선 청년 대중이여! 궐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 저들은 소위 사법 경찰을 총동원하여 광주 조선 학생 동지 400여 명을 참혹한 철쇄에 묶어 넣었다. 여러분! 궐기하라! 우리들이 흘리는 선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선 학생의 이익과 약소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항쟁적 전투에 공헌하라!

①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②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고액 소작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⑤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105인 사건을 날조하였다.

정답: ④

* 6.10 만세운동(1926)과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사이의 역사적 사실

(가) 1926년 6월 10일,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순종 인산일을 기회로 계획한 만세시위 운동은, 사회주의측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음에도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진행되었다.

(나)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1927~1931)를 통한 진상 조사 후원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된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다.

① 의열단 단원 김상옥(1890~1923)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경 400여 명과 치열한 교전 끝에 순국하였다(1923).

②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③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문재철)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1920년대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의 단체 중 하나인 정우회는 1926년 11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정우회 선언).

⑤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는,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105인 사건) 해체되고 말았다(1911).

40.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김좌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②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③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⑤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정답: ③

* 한국 광복군

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9,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한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1938)는 중국 군사 위원회의 통할을 받게 되자,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병력도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여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1942.5).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1941.12)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한, 미전략정보국(OSS)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다소 이른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① 김좌진(1889~1930)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와 연합하여 일제하 최대의 승전인 청산리 대첩을 이루어냈다(1920.10)

②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제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1920.12)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은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며(1921.6),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⑤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41.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②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등의 자문 기구를 설치하였다.
③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④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하였다.
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정답: ④

*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정책

한일병합(1910) 후 일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토지 조사령(1912), 임야조사(1918), 회사령(1910), 삼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을 공포하였다.

특히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식민지 재정을 위한 지세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여 몰락을 초래였다.

회사령(~1920)을 통해서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한국인의 자유로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①, 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민족말살통치를 실시하였다.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여 한국인 형기를 마친 사상범도 지속적으로 탄압하였고,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대에 도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하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자치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이고, 내선융화로서 동화의 주요 대상은 중상류층 또는 지식인 계급이었다.

③ 대한제국기인 1905년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 실시된 화폐정리사업(~1909)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
②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 교육 진흥
③ 신흥 무관 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④ 한인 애국단 결성과 항일 의거 활동
⑤ 신한 청년당 결성과 파리 강화 회의 참석

정답: ①

*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노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이 모든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군사·재정적으로 활약한 이가 최재형(1860~1920)이었다. 일제는 러시아 혁명 직후의 혼란을 틈타 극동 지역에 출병하여 최재형을 잡아 살해하였다.

② 북간도에는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단체와 서전서숙(이상설, 1906), 명동 학교(김약연, 1908) 등의 민족 학교가 세워졌다.

③ 서간도에는 이회영, 이상룡 등의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 이주하여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1911).

④, ⑤ 중국 상하이에서는 1918년 신한청년단이 결성되어 김규식이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931년에는 임정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이듬해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이루어냈다.

43. 밑줄 그은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②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③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④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⑤ 조선 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정답: ②

*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말 전개된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 3부 통합 운동의 결과로 조선 혁명당과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었고, 그 산하에 조선 혁명군(1929)과 한국 독립군(1930)이 편성되었다. 두 독립군 부대는 일제의 만주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항일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북만주 중동철도를 중심으로 중국군(길림자위군, 호로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중국군과의 전리품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1933년 말,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① 동북항일연군(1936)은 만주 지역의 한.중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창설된 동북인민혁명군(1933)이 중국 공산당의 주도하에 기타 항일부대 등과 항일연합적 성격으로 개편된 부대이다. 이 부대의 2군 6사장 김일성은 조국광복회와 함께 보천보 전투(1937) 승리를 이끌어냈다.

③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제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1920.12)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하였다(1921.6, 자유시 참변).

④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하여 일제하 최대의 승전인 청산리 대첩을 이루어냈다(1920.10)

4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나의 연령이 이제 70하고도 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 금일 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영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군 군정 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냐?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 이 민국은 기미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 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 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③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어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⑤ 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정답: ①

*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 사이의 역사적 사실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 조선 건국 동맹의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 받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5.8).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 세력이 건국 준비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했으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건준위에 대항하여 송진우, 김성수 등 지주, 자본가 출신 우파 세력은 한국 민주당을 만들어(1945.9) 미군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10월에는 이승만이 귀국하여 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고, 11월에는 김구가 입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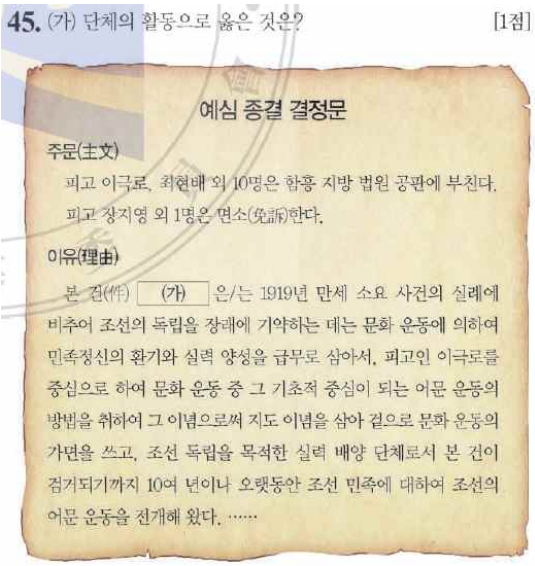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찬성하는 좌익이 대립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차: 1946.3~5, 2차: 1947.5~8)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론을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6.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상정에 의해 유엔에 이관되었다(1947.9).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이 남한은 입국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을 발표하고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안하여 남북협상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지만 실패하였다(1948.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1948.8.15.).

45.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예심 종결 결정문

주문(主文)

피고 이극로, 최현배 외 10명은 함흥 지방 법원 공판에 부친다.
피고 장지영 외 1명은 면소(免訴)한다.

이유(理由)

본 건(件) (가) 은/는 1919년 만세 소요 사건의 실례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래에 기약하는 데는 문화 운동에 의하여 민족정신의 환기와 실력 양성을 급무로 삼아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운동 중 그 기초적 중심이 되는 어문 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 이념을 삼아 겉으로 문화 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한 실력 배양 단체로서 본 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조선 민족에 대하여 조선의 어문 운동을 전개해 왔다. ……

① 여유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③ 국어의 이해 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 연구소를 세웠다.
④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⑤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조선어학회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국어문법' 저술, 1910),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1927)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1933).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조선어학회 사건)로 중단되었다(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

또한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 이 때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정인보는 1934년 다산 서거 99주년을 기념하여 안재홍 등과 <여유당전서> 발간에 참여하여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④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민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상재 등은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일천만이 일원씩'라는 구호와 함께 모금을 추진하였다.

46.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3점]

> 제1조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신민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전형 후 이를 현역 또는 제1 보충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
>
> ⋮
>
> 제3조 보충 병역 혹은 국민 병역에 있는 자, 또는 병역을 마친 자로서 전시 또는 사변시 육군 부대 편입을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전형 후 이를 적의한 부대에 편입할 수 있다.

①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
②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공장 노동자
③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 애국 청년당원
④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원
⑤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는 기업인

정답: ③

* 육군특별지원병령 제정(1938.2)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중일전쟁(1937.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2월 육군 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고,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① 좌우연합의 사회단체 신간회는 1927년에 결성되어 1931년에 해소되었다.

② 일제하 최대의 노동쟁의인 원산총파업은 1929년에 일었다.

③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유만수 등 대한애국청년단 단원들이 경성 부민관(총독부 산하 다용도 건물)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는 일제하 마지막 의거이다.

④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⑤ 토산품을 애용하여 민족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발기한 조선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1923)와 청년학생 중심의 자작회(1922), 여성단체인 토산애용부인회(1923)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7.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 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여 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주동 의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 공산당 사건 혐의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②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하였다.
③ 정·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전조선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정답: ③

* 발췌개헌(1952.7)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1950년 발발) 중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1952. 1.). 그리고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또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원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당은 정·부통령 직선제에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토론없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1952. 7.).

②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1949.1)가 3권 분립에 위반되고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김약수 등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1949. 6).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법안 개정으로 1949년 8월 말 시효가 단축되어 만료됨으로써 해체되었다.

④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의하였고, 북한은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도 요구하여 1948년 4월, 두 회의를 포함한 남북협상이 개최되었다. 연석회의를 통해서는 외국 군대의 즉각 철수, 총선거 실시, 남한단독선거 부인 등을 합의하였다. 김구·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과 별도 회담을 가져 남한과 북한의 단독 국가 수립을 모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4자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⑤ 정부수립 후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기관으로, 토지 및 재산(공장)을 관리하던 기관인 신한공사의 자산을, 농지는 농지개혁법(1949.6)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1949.12)으로 민간인 연고자에 분배하였다. 그러나 불하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정격유착이 있었다.

48.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프로 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②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④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⑤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정답: ①

* 전두환 정부(1980.9~1988.2) 시기의 역사적 사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부(1980.8~1988.2)는 언론통폐합(1980년 12월 언론기본법 제정), 정치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1981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1983), 프로야구 출범(1982)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입본고사 폐지와 과외 전면금지를(1980), 안일한 학문풍토를 개선하다는 명목으로 대학 졸업정원제를 단행하였으며(1981), 의무교육을 중학교로 확대하였다(1984).

②, ④ 김대중 정부(1998.2~2003.2) 때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였고, 금강산 해로관광 사업(1998.6) 등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③ 1962년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의 강력한 주도 하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이 추진되었다.

⑤ 김영삼 정부(1993.2~1998.2) 시기에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49.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의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 제40조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①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②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④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졌다.
⑤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정답: ②

* 유신 헌법 시기의 민주화 운동

1972년 박정희 정부는 7.4 남북공동선언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직후, 10월에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짓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유신 헌법(1972~1980)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35조에 규정한 헌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선거하고(대통령이 추천->유신정우회 의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특히 1974년 1월부터 긴급조치권(1~9호)을 이용하여 민청학련(1974)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1974) 등에서 학생, 지식인 등 진보적 인사들을 탄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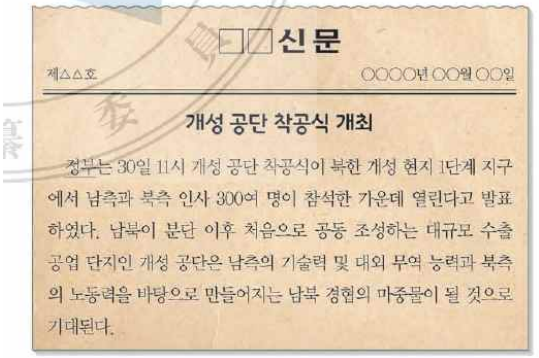
이러한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 선언(1976) 등으로 저항하였다.

①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과정에서 굴욕적 한일협정 회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자,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1964)가 발발하였다.

③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노골적인 부정 선거(3.15 부정 선거)에 국민의 분노가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었다(4.26)

④, ⑤ 전두환 정부의 철권통치에 맞서 재야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하였다(1984).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염원(대통령 직선제)을 무시하고 1987년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발표하자, 범국민적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결국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을 수용하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50.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1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개성 공단 착공식 개최

정부는 30일 11시 개성 공단 착공식이 북한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측과 북측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하였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동 조성하는 대규모 수출 공업 단지인 개성 공단은 남측의 기술력 및 대외 무역 능력과 북측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남북 경협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③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⑤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⑤

* 개성공단을 조성한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고(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1)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노태우 정부(1988.2~1993.2) 때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1991.12).

김영삼 정부는 북핵위기 속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되었고(1994.7),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1994.8).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2006년 이후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해로)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 착공(2003년 착공, 2004년 입주),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2003년 9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였다.